

석탄 유동층 연소로 내 수벽전열관의 열전달 특성

박영성 · 손재익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환경연구부
(1992년 7월 9일 접수, 1993년 2월 15일 채택)

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Membrane Water Wall in a Fluidized Bed Coal Combustor

Yeong-Seong Park and Jae-Ek Son

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Department,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,
P.O.Box 5 Daedeok Science Town, Taejeon 305-343, Korea
(Received 9 July 1992; accepted 15 February 1993)

요 약

파이롯트 규모의 유동층 연소로에서 수벽전열관(membrane water wall)의 열전달 특성을 고찰하였다. 조업 변수로서 유동화속도(2.2-3.2 m/s), 유동층온도(800-960°C) 등이 적용되었으며, 주요 열전달 특성으로서 경막 전열계수(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), 열전달율(heat flux)이 측정 및 고찰되었다. 실험결과 유동층영역 내 수벽전열관의 열전달계수는 유동층온도에 비례하고 유동화속도에 따라 최대값과 함께 증감현상을 보였으며 일반 수평, 수직전열관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. Freeboard영역 내 수벽전열관의 열전달계수는 유동층 내 전열관의 30-40%에 해당되는 낮은 값을 가지며, 유동화속도 및 유동층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.

Abstract—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membrane water wall have been determined in a pilot-scale fluidized bed coal combustor. The effects of fluidizing velocity(2.2-3.2 m/s) and bed temperature(800-960°C) on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heat flux have been determined.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the in-bed membrane water wall increase with bed temperature, while it exhibits a maximum value with fluidizing gas velocity. Also,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membrane water wall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of typical horizontal and vertical tube located in a fluidized bed.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s of free-board membrane water wall appeared to be 30-40% of those of in-bed membrane water wall and they increase with fluidizing velocity and bed temperatur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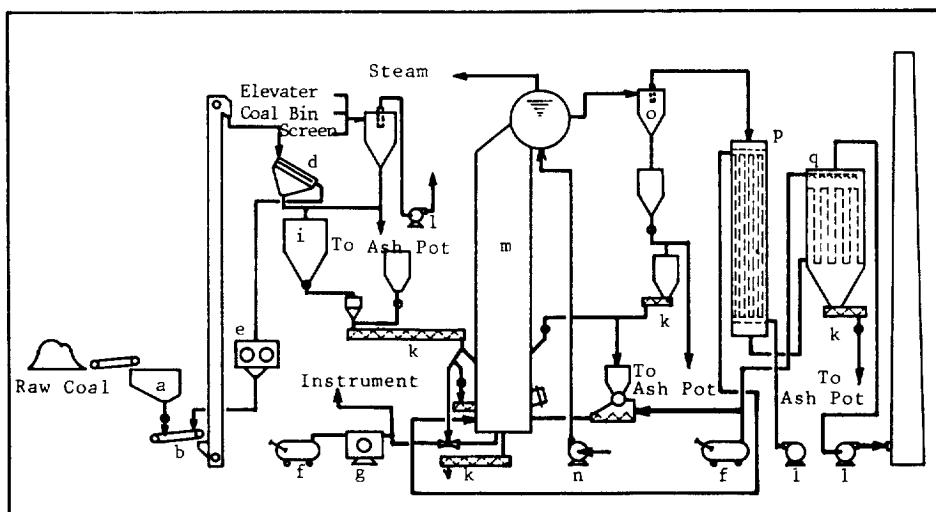
1. 서 론

유동층 연소는 다양한 연료에 대한 탁월한 연소효과와 아황산가스(SO_2), 질소산화물(NO_x)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공해방지효과가 우수하여 석탄을 비롯한 각종 연료의 연소공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[1-4].

일반적으로 유동층 연소로 내 온도는 700-950°C로서

미분단연소나 스토카연소에 비해 일정히 낮으나 고체입자의 전열관 충돌에 의한 접촉전열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유동층 연소로의 열전달율은 재래식 연소장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.

유동층 연소로는 고체입자의 농후상(dense phase)으로 되어 있는 유동층(fluidized bed)과 희박상(lean phase)으로 되어 있는 유동층 상부의 자유공간(free-

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a. Coal storage bin | f. Compressor | l. Screw conveyor | p. Preheater |
| b. Belt conveyor | g. Dryer | m. Fan | q. Bag filter |
| c. Elevator | h. Dust cyclone | n. Combustor | r. Stack |
| d. Screen | i. Coal bin | o. Pump | |
| e. Crusher | j. Hopper scale | | |

Fig. 1. Schematic diagram of fluidized bed coal combustor.

board)으로 구성되는데 열매체로 작용하는 고체입자 및 기체의 수력학적 특성과 온도 등이 다르므로 연소로 내 전열관의 위치 및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열전달 특성을 갖게 된다. 이러한 열전달 특성을 토대로 연소로 내의 온도조절과 함께 적정 열추출량이 결정되는데 이는 유동층 연소로의 안정적인 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므로 유동층 연소로 내 전열관의 열전달 특성파악은 유동층 연소로의 설계 및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.

지금까지 유동층 연소로 내 전열관의 열전달 특성 연구는 주로 유동층 내에 설치된 수평, 수직관에 대한 것이 많이 보고되었으며 [5-8], 근래에 들어 freeboard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freeboard 영역의 전열관에 대한 열전달 특성자료가 보고된 바 있으나 [9-12]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 실험장에서 제한된 조업조건에 대하여 수행된 것이며, 실제로 상용보일러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수벽관 (membrane water wall)에 대한 연구 결과는 Carson [13], Wu 등 [14]의 극소수가 있을 뿐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어 설계 적용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보일러와 유사한 membrane wall 형태의 전열관 배열을 갖고 있는 파이롯트 규모의 유동층 연소로에서의 열전달 실험을 통하여, 유동화속도, 유동층 온도 등의 주요 조업변수에 따른 유동층 및

freeboard에서의 경막전열계수(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)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소로 내 축방향의 열전달계수 및 heat flux 변화, 열회수율 등을 비교, 고찰하였다.

2. 실험

2-1. 실험장치

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는 Fig. 1과 같다. 이는 국내 저열량탄 연소활용을 목적으로 실용플랜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유동층 연소 파이롯트 플랜트로서 크게 석탄 및 공기주입부문, 연소로부문, 연소기체배출 및 비산회재순환부문 등으로 나뉜다.

석탄주입부문은 진동체(vibrating screen), 롤 크러샤(roll crusher), 석탄저장조, 스크류휘더 등으로 구성된다. 석탄공급량은 load cell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되며 공급량의 조절은 스크류휘더의 변속조절기(variable speed controller)를 통하여 이뤄진다. 석탄의 연소로 내 투입은 중력을 이용해 유동층 상부로 투입하는 방식과 kinyon pump나 injection feeder를 사용하여 공기 수송방식으로 유동층 하부로 투입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다.

공기주입부문은 강제통풍팬(forced draft fan), 오리피스형의 유량계(Annubar) 등으로 구성되며, 이들을 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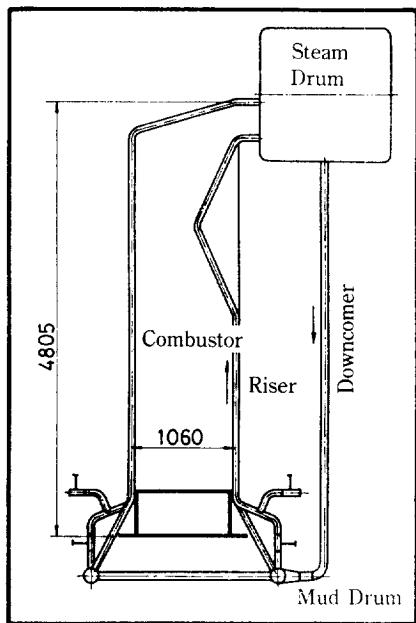


Fig. 2. Elevation view of membrane water wall tube.

친 연소용 공기는 공기예열기에서 예열된 후 공기상자(air box)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다. 공기유량은 관내에 설치된 Annubar 유량계(model ANR-76)에서 차압을 측정하여 산출되며, 공기유량조절은 damper actuator의 작동으로 damper의 개폐비율을 조절하여 이뤄진다.

연소로부문 중 연소로는 총 높이 4 m로 동일한 단면적 크기($1.01 \times 0.83 \text{ m}^2$)를 갖는 유동층과 freeboard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, 연소로 내 열수지를 바탕으로 4면의 벽 중 양측은 수관(water wall tube)이 배열되어 있으며, 나머지 두 면은 내화벽돌로만 되어 있다. 전열관은 직경 63.5 mm, 팁치 100 mm의 membrane wall 형태로 한 쪽 벽에 7개씩 총 1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는 증기드럼에 연결되고 하부는 sub-header에 연결시켜 통상운전시 물의 비중차이에 의한 자연순환(natural circulation)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으나 전열관에 대한 열전달실험시에는 포화수 대신 냉각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유량계 및 조절밸브 등이 부착되어 있는 별도의 물 공급관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상온의 물이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. Fig. 2는 수벽전열관의 입면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며, Fig. 3은 열전달실험용 물공급관의 평면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.

공기분산관은 multi-tuyere 형태로, 80개의 tuyere로 구성되며, 각 tuyere에는 직경 3 mm의 구멍이 10개씩 2 열로 배열되어 1.38%의 개구비(opening ratio)를 갖도록 되어 있으며, 중앙에 층물질(bed material) 배출을 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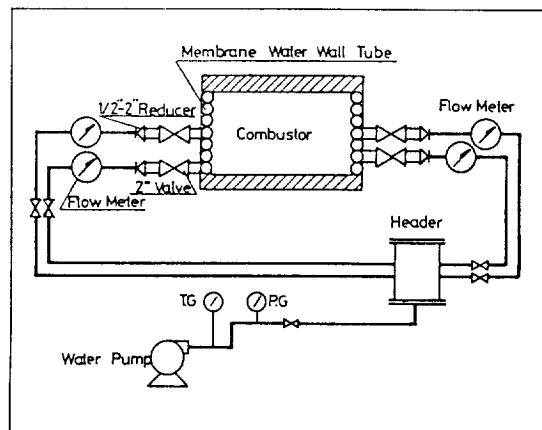


Fig. 3. Plane view of wall tube and water supply tube.

해 직경 103 mm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.

또한 시동용 예열버너는 HP형의 오일버너로서 자동비례제어 분무식이며, 노즐, 착화변압기, 솔레노이드 밸브, 급유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연료유의 유량과 공기유량 등이 로 내 온도변동에 비례하여 제어되도록 되어 있다.

이밖에도 연소로벽에는 로 내 압력측정을 위해 유동층영역에 2개소, freeboard부분에 2개소의 압력점(pressure tap)이 설치되어 있으며, 로 내 온도측정 및 전열관내 물의 온도측정을 위해 유동층영역에 18개소, freeboard 부분에 19개소의 열전대(K type, Chromel-Alumel)가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다.

연소기체배출 및 비산화 재순환부문은 16개의 작은 사이클론이 병렬로 조합된 멀티사이클론과 연소용 공기예열기, 여과포 집진기(bag filter), 배풍기(induced draft fan) 등으로 구성되며, 멀티사이클론에 포집된 비산화재는 별도의 호퍼와 스크류 콘베이어를 거쳐 over-bed 및 in-bed로 재순환되도록 되어 있다.

2-2. 실험방법

유동물질(bed material)로 6 mesh(3.36 mm) 이하의 석탄회재를 연소로 내부에 고정층 높이 약 60 cm(예열버너의 불꽃이 층물질표면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높이)로 채우고 송풍기와 배풍기를 작동시켜 $1,800 \text{ Nm}^3/\text{hr}$ (선속도 : 0.6 m/s) 정도의 공기를 공기상자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유동층이 형성되도록 한다.

유동층이 형성된 후 oil을 사용하는 예열버너를 작동시켜 유동층을 예열시킨다. 예열버너의 공기 및 연료량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조절되며, 화염이 층물질과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연소로 내 유동층 상부 압력은 PID압력조절기를 사용하여 $1 \text{ atm} \pm 50 \text{ mm H}_2\text{O}$ 내에서 일정

Table 1. Experimental conditions

Coal feed rate, kg/hr	400-700
Coal size, mm	0-10
Fluidizing velocity, m/sec	2.2-3.2
Bed temperature, °C	800-960
Static bed height, m	0.7-0.75
Air flow rate, Nm ³ /hr	1,660-2,100
Freeboard pressure, mmH ₂ O	± 50

하게 유지되도록 한다.

예열이 시작된 후 2-3시간이 지나면 유동층 온도는 400-500°C에 도달하며, 이 때부터 착화온도가 낮은 유연탄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소량씩 공급하여 유동층의 예열속도를 높여 준다. 유연탄공급과 함께 유동층 온도는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며, 유동층 온도가 무연탄 착화온도보다 높은 700°C 이상에 이르면 미리 구한 calibration식에 따라 무연탄을 공급한다. 무연탄과 보조연료(유연탄+oil)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유동층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보조연료의 공급량을 서서히 줄이면서 무연탄의 공급량을 늘려준다. 이런 조작을 통해 유동층 온도가 900-950°C에 이르면 보조연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무연탄만 공급한다.

보조연료의 공급이 중단되면 유동층 온도는 약간 하강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일정한 값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석탄공급량, 연소공기량, 유동층높이 등을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서 12 pen 온도기록계와 4개의 차압기록계(DPR)에 나타나는 온도와 압력차에 대한 지시치에 따라 유동상태 및 연소상태를 확인하면서 연소가 정상상태에 이르도록 한다.

휘발분 함량이 낮고 회분함량이 높은 무연탄 연소시에는 연소 후 남는 회재가 유동층 내에 누적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연소로 맨 하부에 설치된 회재배출관을 통해서 총물질을 주기적 혹은 연속적으로 배출시켜 유동층높이를 조절하게 된다. 또한 연소기체는 사이클론과 백화터를 거쳐 대기로 방출되며, 이 때 사이클론과 백화터에 포집된 비산회는 재순환되거나 별도 처리된다.

석탄과 공기, 물 등의 공급량이 일정할 때 유동층의 온도가 ± 20°C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정상상태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모든 실험데이터를 취하였다.

본 열전달실험에 있어서 전체 14개의 전열관 중 10개에는 증기드럼과 강수관을 통해 자연순환회로를 차단하고 펌프로부터 냉각수를 공급하여 상변화(phase change)를 방지하면서 열전달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때의 물의 유량 및 온도차 등을 측정함으로써 열전달계수 및 열전달율(heat flux) 등을 산출한다. 본 열전달실험에 적용된

Table 2. Size distribution of coal and bed material

Size range (mm)	Cumulative(%)	
	Coal	Bed material
9.52 - 7.93	3.05	1.06
7.93 - 4.76	10.60	11.83
4.76 - 2.00	37.07	49.62
2.00 - 0.42	75.63	90.67
0.42 - 0.15	91.81	94.99
0.15 - 0.074	98.49	99.31
0.074-0.000	100.00	100.00
Mean size(mm)	0.44	0.73

조업변수의 조업조건은 Table 1과 같다.

2-3. 시료 및 총물질의 입도분포

본 열전달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발열량 3,200 kcal/kg, 수분 3.8%, 휘발분 함량 4.2%, 고정탄소 40%, 회분 함량 약 52%의 고회분 무연탄이 사용되었다. 무연탄은 연소 특성상 휘발분 함량이 높은 유연탄이나 갈탄과는 달리 연소과정에서 입도축소가 거의 수반되지 않는 상태로 석탄회재를 생성하게 되며, 생성된 회재 중 비산되는 일부 작은 입자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총 내에 누적되어 유동 및 전열매체로 작용하는 총물질을 형성하게 된다. Table 2는 시료탄 및 총물질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. 시료탄 및 총물질 모두 넓은 입도분포를 보이며 총물질이 시료탄보다 더 조쇄한 입자(coarse particle)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열전달실험자료는 총물질의 입도범위가 좁고 비교적 작은 입자 크기를 적용한데 비해서 본 실험은 입도범위가 넓고 비교적 커다란 총물질이 적용되었다.

2-4. 열전달계수 산출법

유동층 연소로 내 membrane water wall에 대한 열전달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. 4와 같다. 열전달계수는 총괄적인 열전달저항의 개념에 의한 총괄전열계수 U_o 와 개별적인 열전달저항에 대응한 경막전열계수 h_o 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경막전열계수 h_o 를 구하였다.

경막전열계수 h_o 와 총괄전열계수 U_o 는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시된다.

$$\frac{1}{U_o} = \frac{1}{h_o} + \frac{x_m D_o}{k_m D_L} + \frac{D_o}{h_i D_i} \quad (1)$$

총괄전열계수는 U_o 는 수관 내 물의 유량 및 온도차, 전열관의 유효전열면적, 대수평균온도차 등을 토대로 다음의 열수지식으로부터 산출된다. Membrane water wall의 유효전열면적 산출에는 tube 및 fin area가 고려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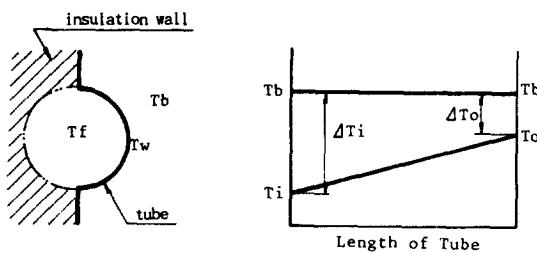


Fig. 4. Heat transfer between membrane water wall and fluidized bed.

$$M_w C_{pw} \Delta T = U_o A_o \Delta T_L = U_o A_o \frac{\Delta T_i - \Delta T_o}{\ln \Delta T_i / \Delta T_o} \quad (2)$$

k_m 는 수관벽의 열전도도로서 금속의 물성치 index로부터 쉽게 인용될 수 있는 값이며, h_i 는 수관내벽의 경막전 열계수로 수관 내 물흐름의 특성에 따라 층류(laminar flow)와 난류(turbulent flow)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은 두식을 이용하여 구해진다.

$$\frac{h_i D_i}{k_f} = 0.023 N_p^{0.4} N_{Re}^{0.8}$$

: Dittus-Boelter eq.(난류관계식) (3)

$$\frac{h_i D_i}{k_f} = 1.62 \left(\frac{4 M_w C_{pw}}{\pi k_f L} \right)$$

: Leveque eq.(층류관계식) (4)

위에서 구한 k_m 와 h_i 를 (1)식에 대입하면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수벽전열관의 경막전열계수 h_o 를 구할 수 있다.

3. 결과 및 고찰

3-1. In-bed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

Fig. 5는 유동화속도에 따른 in-bed membrane water wall의 경막전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. 유동화속도의 증가에 따라 경막전열계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최대값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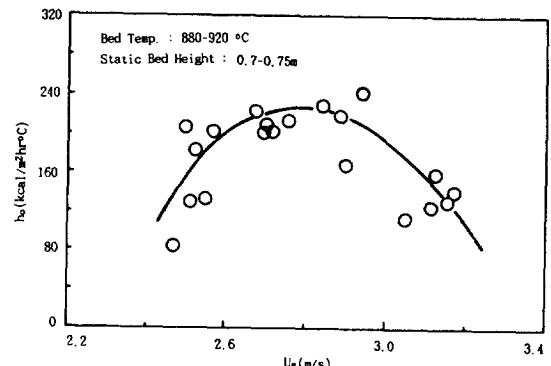


Fig. 5. Effect of fluidizing velocity on heat transfer coefficient(in-bed membrane water wall).

지나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유동화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상의 체류량(hold-up) 증가와 함께 충팽창이 일어나 충물질의 충진밀도(packing density)가 변화[15]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유동화속도가 어느 범위 이상 증가되면 단일 고체입자의 유동은 좀더 격렬해지나 유동층의 팽창에 따른 고체입자의 충진밀도 감소영향이 더 커져 in-bed 수벽관이 전열매체인 고체입자와 접촉되는 빈도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. 유동화속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달계수가 최대값을 지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은 Gelperin과 Einstein[16], Zhang 등[17], Choi 등[18]의 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. 한편 본 열전달실험을 통해서 in-bed 수벽관의 경막전열계수에 대한 최대치는 220 kcal/m²hr°C로서 Table 3에 표시된 유동층 내 일반적인 수평관 및 수직관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직, 수평관과는 구조(configuration) 및 배열형태가 다른 membrane water wall의 본질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. 이와 관련해 Carson[13]은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계수는 일반 수평관의 85%에 해당됨을 보고한 바 있으며, Wu 등[14]은 membrane water wall에 있어서는 tube사이를 잇는 fin의 열전달율이 tube 본체에 비해 떨어지며, 아울러 길

Table 3. Comparison of maximum in-bed heat transfer coefficient(h_{bmax})

Investigator	Mean particle size (μm)	T _b (°C)	U _g (m/sec)	h _{bmax} (kcal/m ² hr°C)	Tube type
Meulink et al.[19]	920	850	1.6-3.2	275	Horizontal
Tuzla et al.[20]	465	500	1.2-4.2	340	〃
Grewal[21]	900	827	1.2-2.4	275	〃
Bak et al.[22]	480	900	0.7-2.0	286	Vertical
	560	900	0.7-2.0	274	〃
	780	900	0.7-2.0	232	〃
This work	440	880-920	2.4-3.2	220	Membrane wal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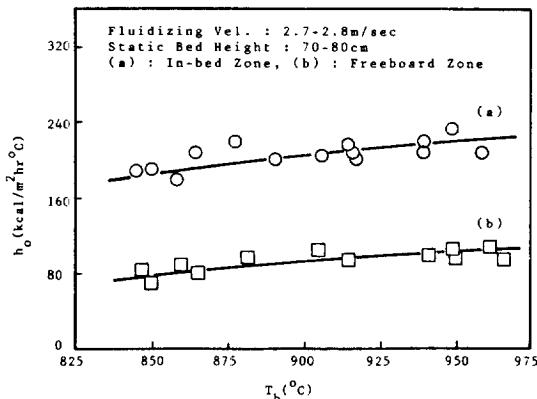


Fig. 6. Effect of bed temperature on heat transfer coefficient(in-bed and freeboard membrane water wall tube).

이가 긴 wall tube에서는 전열매체인 고체입자가 전열관에 부딪힐 때 열적 평형(thermal equilibrium)이 이뤄져 열전달에 대한 driving force가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계수가 일반 전열관보다 낮아짐을 보고한 바 있다.

Fig. 6의 (a)는 유동층온도에 따른 in-bed 수벽전열관의 경막전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. 유동층온도를 830-960°C 범위에서 변화시킬 때 열전달계수는 190-220 kcal/ $\text{m}^2 \cdot \text{hr} \cdot ^\circ\text{C}$ 범위에서 유동층온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 15%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문헌에 발표된 실험결과[17, 18, 21, 22]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유동층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복사전열의 증가와 고체 및 기체의 열용량(C_p)과 열전도도(k) 등의 물성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800-900°C에서는 5-10%를 차지하며 1000°C를 넘으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[16, 23]. 한편 Vreedenburg 등[24], Kharchenko와 Makhorin[25]은 열전달계수는 기체의 열전도도(k_g)의 1/2-2/3승에 비례함을 밝힘으로써 유동층온도 증가에 따른 열전달계수의 증가는 상당부분이 기체의 열전도도 증가에 기인함을 보고한 바 있다.

3-2. Freeboard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

Fig. 6의 (b)는 유동층온도에 따른 freeboard 영역 내 수벽전열관의 경막전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. Freeboard 영역 내 수벽전열관 역시 열전달계수는 유동층온도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층온도 증가시 freeboard 영역의 온도증가와 함께 기체 및 고체의 열전도도, 열용량 등의 물성변화와 복사전열증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[22]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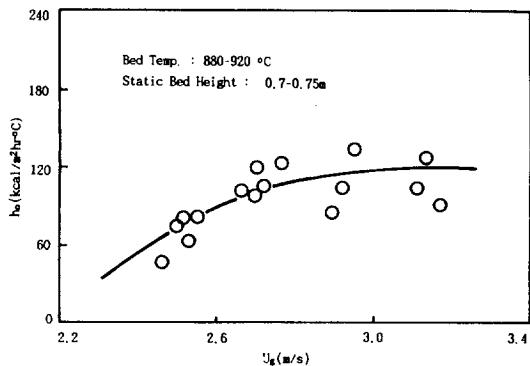


Fig. 7. Effect of fluidizing velocity on heat transfer coefficient(freeboard membrane water wall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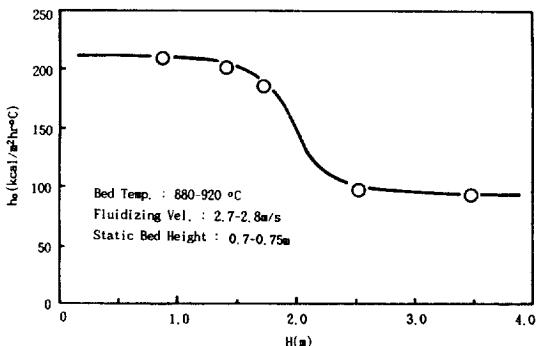


Fig. 8. Heat transfer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height from the distributor.

Fig. 7은 freeboard 영역에 위치한 수벽전열관의 경막전열계수를 유동화속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. Freeboard 영역 내 수벽전열관의 경막전열계수는 80-110 kcal/ $\text{m}^2 \cdot \text{hr} \cdot ^\circ\text{C}$ 에 해당되며, 유동화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in-bed 수벽전열관의 열전달 특성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유동화속도가 증가할수록 기체의 대류전열이 증가되고 아울러 고체입자의 비산량 증가에 따라 고체입자의 접촉전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[9, 18].

3-3. 연소로 내 축방향의 열전달 특성 비교

Fig. 8은 연소로 내 수벽전열관의 수직높이에 따른 열전달계수를 나타낸 것이다. 주어진 조업조건에서 고정층높이(static bed height)의 약 2배에 달하는 높이까지는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이상되는 구간에서는 급격히 떨어져 다시 낮고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현상은 유동층표면(bed surface)에서 기포의 분출(eruption)과 함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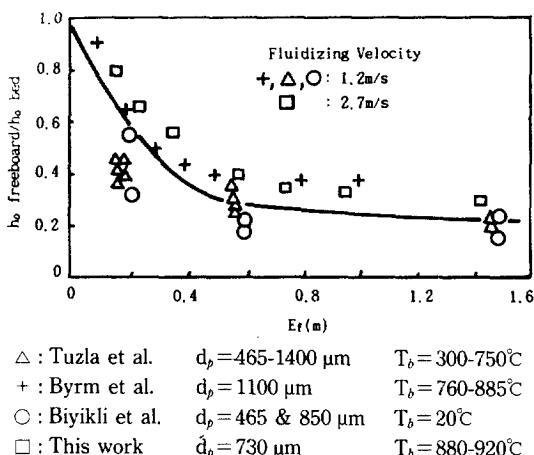


Fig. 9. Variation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with freeboard elevation.

충물질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splash zone을 경계로 고체 입자층이 농후상(dense phase)에서 희박상(lean phase)으로 바뀌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Fig. 8을 토대로 주어진 충물질의 입자크기 및 유동화속도조건하에서 팽창층높이(expanded bed height)는 공기분산판 상부 약 1.5 m에 해당하며, splash zone의 길이는 0.6-0.7 m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 연소로 내 축방향의 열전달 계수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양상은 Carson[13], Görmar 등[26]의 실험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.

한편, 이러한 축방향의 열전달계수차와 연소로 내 구간별 대수평균온도차(연소로 내 가스온도와 전열관 내 물의 온도차의 평균치, ΔT_c)의 곱으로부터 수직높이에 따른 열전달율(heat flux)을 구한 결과 열전달율은 $4 \times 10^4\text{-}1.8 \times 10^5 \text{ kcal/m}^2\text{hr}$ 의 범위에 해당되며, 유동층 영역의 수벽판이 freeboard영역의 수벽관에 비해 3-4배가 큰 열전달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구간별로 열전달율과 배열가능한 전열관면적을 적용해 열회수율을 구해 본 결과 연소로 내 전체 회수율의 60-70%는 유동층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Fig. 9는 유동층 표면(bed surface)에서 freeboard top에 이르는 각 지점에서의 열전달계수를 h_0 freeboard/ h_0 bed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, 본 연구와 여러 발표자료를 종합한 것이다. 본 연구결과는 다른 자료들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아울러 freeboard영역에서의 열전달계수는 유동층영역의 30-40%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[20]. Fig. 9에서 실선은 대략적인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, 본 연구결과가 다른 발표자료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본 실험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유동화속도조건하에서 고체입자 비산량

증가에 따른 고체입자와 freeboard영역 내 전열관과의 접촉전열증가와 기체의 유량증가에 따른 대류전열의 증가 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.

4. 결 론

유동층 연소로의 수벽전열관에 대한 열전달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(1) 유동층 영역 내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 계수는 유동층온도에 비례하고 유동화속도에 따라서는 최대값과 함께 증감현상을 보였으며, 유동층 내 일반 수평, 수직관에 비해서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.

(2) Freeboard 내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계수는 유동화속도 및 유동층온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, 유동층영역 내 열전달계수의 30-40%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.

(3) 유동층 연소로 내 membrane water wall의 열전달계수는 축방향으로 splash zone을 지나면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였으며, 열전달율은 유동층영역이 freeboard 영역보다 3-4배 높은 값을 보였다.

사용기호

- A_o : heat transfer area of heat exchange tube [m^2]
- C_{pf} : specific heat of fluid flowing in tube [cal/g°C]
- C_{pw} : specific heat of water [cal/g°C]
- D_i : inside diameter of heat exchange tube [m]
- D_L : log mean diameter of heat exchange tube [m]
- D_o : outside diameter of heat exchange tube [m]
- d_p : particle diameter [mm, μm]
- E_f : freeboard elevation [m]
- H : height of wall tube from the distributor [m]
- h_{bmax} : maximum in-bed heat transfer coefficient [$\text{kcal}/\text{m}^2\text{hr}^\circ\text{C}$]
- h_i :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tube inside area [$\text{kcal}/\text{m}^2\text{hr}^\circ\text{C}$]
- h_o : individual heat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tube outside area [$\text{kcal}/\text{m}^2\text{hr}^\circ\text{C}$]
- k : thermal conductivity [$\text{kcal}/\text{mhr}^\circ\text{C}$]
- k_g : thermal conductivity of gas [$\text{kcal}/\text{mhr}^\circ\text{C}$]
- k_m : thermal conductivity of heat exchange tube [$\text{kcal}/\text{mhr}^\circ\text{C}$]
- L : length of heat exchange tube [m]
- M_w : flow rate of cooling water [kg/hr]
- N_P : Prandtl number [-]
- N_R : Reynolds number [-]
- T_b : bed temperature [$^\circ\text{C}$]

- T_f : temperature of fluid [°C]
 T_i : water inlet temperature [°C]
 T_o : water outlet temperature [°C]
 ΔT_i :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bed and water
at tube inlet [°C]
 ΔT_o :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bed and water
at tube outlet [°C]
 ΔT_L : log mean temperature difference [°C]
 T_w : temperature of membrane tube wall [°C]
 U_g : fluidizing gas velocity [m/s]
 U_o :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based on out-
side area [kcal/m²hr°C]
 x_m : thickness of heat exchange tube [m]

참고문헌

- Well, J. M., Byrd, J. R. and Krishnan, R. P.: Proc. of the 7th Int. Conf. on FBC, 2, 1107(1982).
- Rajan, R. R. and Wen, C. Y.: *AIChe J.*, **26**, 642(1980).
- Choi, J. H., Son, J. E. and Kim, S. D.: *HWAHAK KONGHAK*, **26**, 494(1988).
- Park, Y. S. and Son, J. E.: *HWAHAK KONGHAK*, **28**, 320(1990).
- Kim, S. D.: *HWAHAK KONGHAK*, **17**, 85(1979).
- Saxena, S. C., Grewal, N. S. and Gador, J. D.: "Advances in Heat Transfer", Vol. 14, 149(1979).
- Kunii, D. and Levenspiel, O.: "Fluidization Engineering", Chapter 13, 2nd ed., John Wiley & Son, New York, 313(1991).
- Botterill, J. S. M.: "Fluidized-Bed Heater", Academic Press, New York(1975).
- George, S. E. and Grace, J. R.: *AIChe J.*, **28**, 759 (1982).
- Hashimoto, O., Mori, S., Hiraoka, S., Kojima, T. and Tsuji, K.: *Int. Chem. Eng.*, **30**, 254(1990).
- Biyikli, S., Tuzla, Z. and Chen, J. C.: *Powder Technology*, **53**, 187(1987).
- Farag, I. H. and Tsai, K. Y.: Proc. of the 11th Int. Conf. on FBC, Vol. 3, 1207(1991).
- Carson, W. R.: Proc. of the 8th Int. Conf. on FBC, Vol. I, 208(1985).
- Wu, R. L., Lim, C. J., Chaouki, J. and Grace, J. R.: *AIChe J.*, **33**, 1888(1987).
- Lee, C. K., Choi, J. H. and Son, J. E.: *Energy R&D*, **8**(4), 16(1986).
- Gelperin, N. I. and Einstein, V. G.: "Fluidization", ed. by Davidson J. F. and Harrison, D., Academic Press, London, 471(1970).
- Zhang, H. C., Cen, K. F., Xie, C. L. and Huang, G. Q.: Proc. of the 7th Int. Conf. on FBC, Vol. 1, 819 (1982).
- Choi, J. C., Kim, Y. J., Moon, S. H. and Kim, S. D.: *HWAHAK KONGHAK*, **23**, 153(1985).
- Meulink, J. P., Haasteren, A. W. M. B. V. and Temmink, H. M. G.: Proc. of the 8th Int. Conf. on FBC, Vol. I, 179(1985).
- Tuzla, K., Biyikli, S. and Chen, J. C.: Proc. of the 8th Int. Conf. on FBC, Vol. I, 159(1985).
- Grewal, N. S., Zobeck, B. J., Mann, M. D. and Hajicek, D. R.: Proc. of the 1987 Int. Conf. on FBC, Vol. 2, 1153(1987).
- Bak, Y. C., Son, J. E. and Kim, S. D.: *HWAHAK KONGHAK*, **23**, 213(1985).
- Basu, P.: AIChe Symp. Ser., **74**, 187(1978).
- Vreedenburg, H. A.: *J. of Appl. Chem., Suppl. Issue 1*, **S26**, 526(1952).
- Kharchenko, N. Y. and Makhorin, K. E.: *Int. Chem. Eng.*, **4**, 650(1964).
- Görmar, H., Renz, U. and Verweyen, N.: Proc. of the 10th Int. Conf. on FBC, Vol. 2, 1241(1989).